

無 케이블·無 중계차...스포츠 중계 미래 열다

이동 제약 사라지고 송출 과정 간소화
4D 리플레이 등 특별 영상도 반응 극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SK텔레콤 오픈 2019에서는 지난해 신인왕 함정우의 우승, 최경주의 12년 연속 출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5G를 통해 생중계를 선보이며 SK텔레콤의 기술력을 뽐낸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5G를 공식적으로 상용화 시키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5G를 활용한 골프 생중계로 중계 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골프 중계는 촬영 영상을 각 홀에 구축된 총 연장 30~40km 케이블을 통해 현장에 있는 중계차로 보내고, 이를 방송국으로 송출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 오픈 2019에서는 5G로 무선화된 각 카메라에서 개별 홀의 영상을 임시 조정실로 보내 바로 송출하면서 중계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었다. 대당 200~300억 원씩 하는 중계차 비용 역시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중계 현장에서 카메라, 케이블 선 등 복잡한 설비가 줄어들면서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중계를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5G 무선중계를 담당했던 방송 PD는 “기존 중계와 달리 주요



SK텔레콤 오픈 2019의 세계최초 5G 골프 생중계 리허설에서 최경주(가운데)가 권성열(오른쪽)을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관심 선수를 각각 팔로우하거나 카메라가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다는 점 등 시청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다 새로운 중계를 경험하게 될 것 같다”라며 “이러한 5G 무선 중계가 앞으로 스포츠 중계의 미래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SK텔레콤 오픈 2019에서는 갤러리의 시각에서 대회 이모저모와

대회장 분위기를 소개하는 ‘갤러리 캠’, 출전 선수의 스윙을 정확히 분석하는 타임 슬라이스 방식의 ‘4D 리플레이’,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해 슬로 모션으로 스윙을 분석하는 ‘슈퍼슬로 캠’ 등 다양한 특별 영상을 제공했다.

SK텔레콤 5GX미디어사업부 관계자는 “유선전화가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통신 사업이 변화했듯이 무선 통신을 통한 중계는 스포츠 생중계 시장을 급속도로 변화시킬 것이다. SK텔레콤은 향후 다양한 종목에서의 시도와 함께 뉴스, 긴급재난현장 등까지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 관계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야구팬과의 소통 창구 된 KBO 10구단 유튜브 채널

과거에는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았다.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창구가 생겨났고, 이는 KBO리그에도 큰 영향을 미쳐 모바일중계, 실시간 채팅 등과 같이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상 제공 채널의 등장이다. 대표적인 유튜브는 구단이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좋은 창구가 되었다. 젊은 층에게는 모바일을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렇듯 양측의 수요가 맞물리며 구단 채널이 활성화 되었다.

구단 채널이 주목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팬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선수들을 활용한 오락 콘텐츠는 그라운드 위에서 보지 못한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으로 친근함을 더한다. 베어스포티비의 ‘잠실식단’은 식사시간 선수들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비시즌 기간에는 야구가 그리운 팬들에게 선수들의 훈련, 스프링캠프 영상을 통해 궁금증과 허전함을 달래준다.

유튜브는 조회수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구단채널은 수익 창출보다는 구단 홍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많은 구단들이 외주업체에 기획과 제작을 맡기고 있어 다양성 측면의 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21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한축구협회의 경우는 뉴미디어 플랫폼 담당자를 채용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야구 구단 채널들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지윤 명예기자(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wdbsthdghk@naver.com

주장 완장+기립박수...‘임대생’이 그 힘든 걸 해냅니다

위건으로 임대된 19세 리스 제임스
최종전 임시 주장 맡아 마지막 인사

관중들의 기립박수는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주장 완장도 팀에서 단 한 선수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슈퍼스타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5일(현지시간) 위건 애슬레틱의 홈구장 DW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위건 애슬레틱과 밀월의 경기에서 ‘임대생’ 신분의 19세 리스 제임스(위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냈다.

한 시즌만 뛰고 월 소속팀으로 복귀하는 임대생 신분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비록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임시 주장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

리스 제임스의 활약은 진중한 훈련 태도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낯선 곳으로 변해도 항상 성실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 위건에서 바로 주전을 차지할 만큼 선수로서의 능력도 출중했다. 위건의 폴 톱 감독은 위건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임스의 커리어에서 조그마한 일부분이 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모든 유소년 선수들이 그

와 같은 태도와 열정을 갖고 있었다면, 축구계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며 극찬하기도 했다.

프로답지 못한 선수가 넘치는 시대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진 선수들은 쉽게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베테랑 선수는 이적을 위해 팀 훈련을 거부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리스 제임스는 달랐다. 그는 박수갈채를 받은 후에도 약 30분 간 남아 팬들에게 사인을 선물하고 경기장을 나왔다. 2018~19시즌은 그의 ‘프로다움’을 보여준 시즌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성균 명예기자(가천대 한국어문학과) psg9905@naver.com



홈구장에서 열린 밀월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기립박수를 받은 리스 제임스.

사진출처 | 리스 제임스 공식 SNS

무공해 한약제 30여종을 72시간 다려 추출한 한방원액 "탈모완화샴푸"(MSM)와 에센스!

명품 헤어조이(MSM) 샴푸와 에센스!! 특별행사 선물세트 "확!" (중간유통) 내렸습니다.

평택 서울이발소 정병국 사장님! 제가 52년 이발사로 써본 어떤 샴푸와도 비교해도 "머리카락이 안 빠지네요." 한 명품샴푸!!

★ MSM샴푸 1병 소비자가 49,000원



MSM샴푸 1+1 = 2병 49,000원

미국(FDA) 유럽(CPMP) 한국(KFDA) 식약처(GMP) 케나대(임상발모시험) E.mart(임상발모시험) 검증된 제품

※ 헤어조이(MSM) 특징

만 38년 머리에 관한 연구로 머리(두피)에 관한 병원의사를 상대로 100여회 이상 강의를 하신 세계적인 분이 “무공해 한약제 30여종을 72시간 다려 추출한 원액”으로 “화학성 방부제가 전혀없고” “머리를 빠지지 않게 하는 성분” “비듬 가려움증을 제거하는 성분” 또 “머리가 나오는 성분” 등 한번만 샴푸해도 머리가 빠지지 않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명품” 헤어조이(MSM) 샴푸입니다.

덜빠지고! 안빠지고! 다시나온다!!



청주 하북대순복음교회 민병덕목사님께서 샴푸와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했더니 주위 사모님들이 머리가 많이 나왔다고 칭찬을 하여 헤어조이샴푸와 에센스를 추천 했어요! 하고 전화로 또! 제품을 주문 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51-0526-5354-13(예금주: 조이폴라브)

※ (MSM)샴푸 와 "에센스"(100%원액)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는 분은 샴푸만 쓰셔도 되지만 많이 빠지신 분과 갑자기 빠지시는 분은 샴푸를 하시고 드라이로 수분없이 말려 주시고 "에센스"(100%원액)을 빠진 부분에 하루 4~5회 뿌려주시면 비듬, 가려움증은 즉시 없어지고 머리가 빨리 올라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헤어조이(MSM)샴푸와 에센스! 특별행사!! / 샴푸구입 : ☎ 1522-2353

총판매사 : (사)조이폴라브(공익법인) ☎ (02):720-0691(수익은 사회공헌에 쓰입니다) 문의 : ☎ (010) 8321-0692